

# 네팔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Government of Nepal

2022. 01.

## 관계부처 합동

동 전략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될 예정이며, 국내 및 수원국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목 차

I. 전략적 중요성 .....	1
1. 전략적 중요성 .....	1
2. 개발협력수요 .....	2
3. ODA 추진 SWOT 분석 .....	4
II. 수원국 분석 .....	6
1. 국가개발전략 .....	6
2. 수원체계 .....	9
3. 수원국 거시 분석 .....	10
III.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	12
1. 기본 방향 .....	12
2. 분야별 수요 분석 .....	14
3. 분야별 지원 방안 .....	21
4. 이행점검방안 .....	28
IV. 이행전략 .....	30
V.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32
1. 모니터링 방안 .....	32
2. 평가계획 .....	33

# I. 전략적 중요성

## 1 전략적 중요성

### □ (경제협력) 산업·관광 등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 (인력) 네팔 근로자들의 한국 고용시장 진출\*로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과 문화 가교 역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양국간 '07년 고용허가제(EPS) MOU 체결 이후, '19.3월 기준 4만 6천여명 네팔 근로자 유입

- (관광)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및 불교 성지 룸비니 방문 등을 위해 연간 3만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네팔을 방문 중

### □ (경제협력) 에너지·교통인프라 개발 관련 협력 가능성 다대

- 네팔은 83,000MW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3,000MW는 경제적 사용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현재 1,182MW만 개발된 상황

\* (주)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차멜리아 수력발전소 건설사업(30MW, 9,900만불) 참여('19.9월 완공)

\* 남동발전컨소시엄, Upper-Trishuli 수력발전(216MW, 5.7억불) 사업 PPA(전력구매협상) 체결

- 네팔은 철도시설이 전무하여 '11년부터 중장기 철도개발계획을 세워 현재 네팔 동서지역 1,200km를 연결하는 철도시설설계 용역사업 진행 중

\* 한국철도시설공단컨소시엄 네팔 동서철도 일부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사업 참여

### □ (지정학적 위치) 거대시장인 인도와 중국 접경국

- 네팔은 각각 10억 이상 인구를 보유한 세계 거대시장 인도와 중국과 국경을 접해있어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로 활용 가능

- 향후 정세 안정 시 물류산업 분야에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임가공 수출산업의 판로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환경자원) 히말라야·정글 등 천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고

- 2,4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 산맥 중 약 850km가 नेपाल을 관통하고 있으며,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를 비롯하여 8,000m 이상의 만년 설산 봉우리 8개가 नेपाल에 위치
- नेपाल은 북부지역 히말라야 고지대의 고산환경부터 남부저지대의 습지생태까지 **다양한 생태환경**을 아우르고 있으며, 세계에서 25번째로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
  - \* 특히 치트완 지역 등 남부 습지에는 멸종위기종인 ‘외뿔코뿔소’, ‘벵골호랑이’를 포함한 약 450종의 생물종 서식으로 천혜의 자연생태를 구성 중
- नेपाल의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에 대한 연구·보전은 관광자원의 친환경적 개발 및 전세계적 기후위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 개발협력 수요

- (물관리 및 보건위생) नेपाल은 인구 1천명당 병상수가 0.9개로 세계 평균 2.0개 대비 낮고(नेपाल보건부 ‘20) **감염병 대응 역량**(격리병상, 집중치료병동 등)도 낮은 수준
  - **보건의료 인력**도 ‘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1.9명으로 WHO 권고사항인 인구 1천명당 의료인 2.3명 수준보다 낮은 실정으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전달서비스 체계 개선이 시급
    - \* नेपाल 정부는 제15차 국가개발계획(‘19/20-‘23/24)에서 건강하고, 생산성이 있으며, 책임 있고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확대함으로써 모든 인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교육) नेपाल은 전체 인구의 44.2%가 18세 미만이며, 15-49세 노동 가능 인구 비율이 50.6%를 차지하는 등 **풍부한 젊은 노동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그러나 네팔 청년층의 기술역량 부족 및 취약한 내수산업 구조로 인해 해외 이주노동 선택 비율이 지속 증가 추세
  - 네팔 내수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훈련 인프라 확대, 산학연계 기반 현장 교육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
  - \* 네팔 정부는 15차 국가개발계획('19/20-'23/24)에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인적 자원 부족, 자격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직업교육에 대한 기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단위의 기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포함한 교육분야 전략을 포함함.
- (지역개발) 네팔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해 농촌주민이 전체 빈곤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국민의 66%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GDP의 1/3을 담당하나 영세농업으로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음
  - 또한 대부분 산악지역인 네팔 농촌은 접근성이 취약하고 저장시설이 부족해 수확후 농산물 헐값에 거래되는 등 농가소득 제약 요인이 상존
  - 이에 따라 농업생산성 증대와 지역사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인프라 확충, 영농기술 강화, 유통서비스 구조개선 등이 요구
  - \* 네팔 제15차 국가개발계획에서도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구축 및 영양개선, 농업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소득증대와 기업육성, 농업분야의 상업화 경쟁력 구축을 통한 농업무역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에너지) 네팔의 기술적 포장 수력 약 43,000MW 중 현재까지 약 2.7%만이 개발되어 총 수력발전 설비 용량은 1,182MW에 불과한 상황
  - 인구의 약 74%만이 전력 접근이 가능하여 에너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전력공급 확대가 필요
  - 또한, 카트만두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요구
  - \* 네팔 정부는 제15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20~'23/24)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5,000MW 전력생산을 주요 개발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 □ 한국 對 네팔 관계

- (외교관계) 1974년 5월 수교
- (주요 협정체결) 영사협정('69), 무역협정('75), 차관공여협정('97), 이중과세 방지협정('03), 항공협정('04), 문화협정('05), 무상원조협정('15)
- (교역·투자) 한-네팔 양국 간 교역·투자 규모는 많지 않으나, 한국의 對네팔 수출은 상당 부분이 인도 등 제3국을 통해 이루어져 실제 교역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큰 것으로 추정
  - 우리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수출하고 네팔은 의류, 섬유제품 등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

## &lt; 對 네팔 교역·투자현황 &gt;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교역액	22.9	27.5	27.3	36.4	37.0	51.0	62.0
수 출	20.0 (17.7)	25.6 (27.9)	25.5 (-0.5)	34.5 (35.2)	35.0 (1.6)	48.0 (37.6)	60.0 (23.9)
수 입	2.9 (87.5)	1.9 (-33.7)	1.8 (-6.6)	1.9 (6.8)	2.0 (6.9)	3.0 (43.3)	2.0 (-17)

《단위 : 백만 불, ( )는 증감률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전략적 고려사항

		강점 S	약점 W
외부환경	내부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허가제로 한국 노동시장 진출도 高</li> <li>한국 관광객 증가로 인한 네팔 서비스업 발전 기여도</li> <li>한국의 경제발전 모델, ICT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li> <li>NGO 기관의 지원활동 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기업의 네팔 진출이 미미</li> <li>대지진, 국경봉쇄 등 정세 불안으로 사업추진 지연</li> <li>기초 보건의료시설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및 에너지자원 접근성 저조</li> <li>농업 생산성 저조 및 상업화 부족</li> </ul>
	기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중국 경계의 내륙국으로 산악지대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수력자원 확보</li> <li>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 ODA 재원 유입 확대</li> <li>네팔의 기후중심 회복(Green Recovery)을 위한 공여/외교그룹(IDPG)간 협력 확대</li> <li>교통-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수요 증가</li> <li>해외인력 송출로 인한 달러 유입, GDP 기여도(30%) 高</li> <li>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국 협력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한 원조사업 지원 강화</li> <li>사업수행 파트너기관 다각화를 위한 노력 병행</li> <li>기초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네팔 전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li> </ul>
위협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경제발전 및 ICT 기술을 적용한 연방정부 안정화 지원</li> <li>단순 직업훈련에서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지원</li> <li>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 자연사업의 정상화 지원 및 기후환경 분야 신규 우수사업 발굴 병행</li> <li>국내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발굴 확대 지원</li> <li>농업 생산성 향상과 보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해 네팔 최빈국 졸업 지원</li> </ul>
		ST전략	WT전략

## II. 수원국 분석

### 1 국가개발전략

#### □ 신규 국가비전

- 네팔의 **국가기획청**(NPC, National Planning Commission)은 대내외 변화를 반영하여 5개년 단위의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15차 개발계획('19/'20-'23/'24)을 확정

- **(비전)**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Prosperous Nepal, Happy Nepalese)

#### <네팔 5개년 계획의 주요 미션>

번영	행복
1. 현대식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1. 웰빙 및 삶의 질 개선
2. 인적자원의 잠재력의 개발 및 활용	2.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3. 생산성 증가 및 유지	3. 건강하고 균형잡힌 환경
4. 국가 소득 증가 및 형평성 증가	4. 굿 거버넌스
	5. 종합적 민주주의
	6. 국가 안보

#### □ 신규 국가발전전략

- 제 15차 국가 개발계획('19/'20-'23/'24)에서 네팔의 '중장기 국가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

- 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구축
- 양질의 의료시설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생산력 강화
- 사회 안보 및 안전 증진
-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증진
- 공공서비스 강화 및 지역별 균형 증진



○ 제 15차 국가개발계획 중 『직업훈련 분야 전략』

-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인적 자원 부족, 자격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 존재
- 이를 위해 네팔 정부에서는 기술/직업교육에 대한 기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단위의 기술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포함한 교육분야 전략\*을 수립

\* 각 지방정부 단위에서 전문 교사와 필수 인프라를 갖춘 기술학교/직업훈련센터 최소 1개 보유 목표

○ 제 15차 국가개발계획 중 『보건분야 전략』

- 건강하고, 생산성이 있으며, 책임 있고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확대함으로써 모든 인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정
- 네팔 정부에서는 ▲양질의 기초/전문화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모든 연령층의 보건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되, 모자보건, 청소년보건 및 가족관리서비스에 특히 중점을 둠
- ▲인구 분포·지형 등을 감안하여 의료시설 확대, ▲보건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확대, ▲보건정보시스템 강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 질병 통제를 위한 통합적 조치 실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략 수립

○ 제15차 국가개발계획 중 『농업분야 전략』

-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구축 및 영양개선, 농업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소득증대와 기업육성, 농업분야의 상업화 경쟁력 구축을 통한 농업무역 균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네팔 농업 개발 계획 전략 프레임워크>

수준	내용
타겟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및 영양 안보</li> <li>• 빈곤 경감</li> <li>• 농산물 무역 경쟁력 강화</li> <li>• 임금 수준 및 형평성 증대</li> <li>• 농민 인권 강화</li> </ul>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 생산성, 상업화, 경쟁력</li> </ul>
실행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용성(사회적 및 지리적)</li> <li>• 지속가능성(천연자원 및 경제)</li> <li>• 민간 부문 및 민관 협력</li> <li>• 연결성(예: 농업 도로, 집하장, 포장 센터, 시장 등)</li> <li>• 정보 인프라, ICT 및 전력 인프라(예: 농촌 전기 공급, 재생 및 대안 에너지 마련)</li> </ul>

○ 제 15차 국가개발계획 중 『에너지 분야 전략』

- 네팔 정부는 제15차 국가개발계획('19/'20-'23/'24)을 통해 10.3%의 경제성장 및 5,000MW 규모의 전력생산을 주요 개발목표로 제시
-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에너지를 현대 에너지로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혼합 에너지 시스템 정책 채택
- 대체 에너지 생산, 활용, 관리를 위해 정부 간 조정 및 협력 실시, 에너지 효율 관련 최신 기술 및 응용 분야 홍보/연구개발 강조
- 대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내외 직접 투자 장려, 대체 에너지 기술 진흥을 위해 금융기관·민간 참여 및 투자를 늘려 고용 기회 증대
- 에너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부문에 전기·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우선 과제로 포함하고, 해당 분야 지방 정부의 참여도 제고

### □ 수원 체계

- 네팔 원조 총괄기관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이며, 재무부 산하 **고위급 개발협력 정책 집행 위원회**와 **국제경제협력조정국**(IECC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Coordination Division)이 중심, 관련 부처, 기관과 긴밀히 협조중

\*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개발협력 사업 수행의 주인 의식과 책무성 실현, 효율적 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 공여국 협력체계

- 네팔 정부와 개발협력 파트너 간의 조율을 위해 **정부-개발파트너 공동 메커니즘**이 운영되고 있으며, 분기별 지역개발파트너회의를 통해 네팔 정부와 지역 개발 파트너 간 개발협력 정책 실행 논의
- 정부 주도 **네팔 포트폴리오 실행 리뷰**(Nepal Portfolio Performance Review) 연 1회 개최되며, 시행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해 네팔 정부와 지역 개발 파트너 간의 협업 증대
- IDPG(각국 외교부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기구그룹) **격주 정례회의**를 통한 다분야 개발이슈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응중
  - 네팔 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PCR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백신 공급, 기후변화 대응 등 관련 개발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네팔 정부와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지원을 모색중

## □ 신용위험

- (외환보유) 최근 5년간 외환보유액 80억 달러 이상 안정적 유지중
  - 수출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송금 및 원조자금에 의존하는 실정
- (외채현황) '21년 총외채잔액과 GDP 대비 총외채는 각각 74.4억 달러와 21.9%로 전망되고 있으며,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중
- (외채상환) '20.2월 IMF/세계은행 지속가능채무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등급은 “낮음(Low)”으로 네팔의 디폴트 가능성은 낮음
  -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저소득국 채무취약성 대응을 위해 G20의 채무상환유예 이니셔티브 합의로 한국정부(EDCF) - 네팔정부 간 채무일부('20.4~'21.12월 상환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중
- (국가신용등급) OECD는 네팔의 거시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라 '14년 국가신용등급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한 후 현재까지 동일 등급 유지

&lt; 네팔 주요 경제지표(대외 및 외채) &gt;

경제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8.2	6.7	7.1	0.0	2.7
재정수지/GDP	%	-3.1	-6.7	-4.6	-7.9	-6.7
경상수지	백만 달러	-1,033	-2,775	-1,714	-2,568	-1,847
경상수지/GDP	%	-4.1	-9.6	-5.6	-8.0	-5.4
상품수지	백만 달러	-9,365	-11,916	-11,021	-9,426	-10,015
수출	백만 달러	836	929	1,107	791	762
수입	백만 달러	10,200	12,844	12,128	10,216	10,777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9,138	8,045	8,374	8,236	8,373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4,634	5,221	5,445	6,874	7,442
총외채잔액/GDP	%	18.4	18.0	17.7	21.4	21.9
단기외채	백만 달러	630	706	823	823	-
외채상환액/총수출	%	6.2	6.7	6.1	14.2	10.5

\* 2020년 수치는 추정치, 2021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2021 세계국가편람

## □ 재정건전성 관리능력

- (경제성장) 세계은행은 남아시아 지역보고서(21.3.31)에서 네팔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0.6→2.7%) 했으며,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관광산업 재개 등으로 네팔의 경제성장세 회복 전망
- (경상수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네팔 정부의 대두유 가공수출 강화 및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등으로 경상수지 개선이 예상
- (재정수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부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있으나 향후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

## □ 정치적 위험

- (국내상황) 정파간 입장 차이로 인한 내각 구성 지연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전망
  - '15. 10월 선출된 올리(Khada Prasad Sharma Oli) 총리의 하원의회 해산 추진에 따른 야당 연합의 '총리 불신임 운동'을 통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총리가 '21.7월 새로 취임
- (국제관계) 네팔은 국경을 맞댄 인도 및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들간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균형 외교 실시
  - 데우바 신임 총리는 정파간 협력을 통해 인도와의 영토분쟁(칼라파니 지역, Kalapani) 해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구상, 미국의 대네팔 무상원조 프로그램 비준 등 복잡한 외교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 III.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 1 기본 방향

2030년까지  
중소득국으로  
도약

**2030년까지 중소득국으로 도약**  
경제적 빈곤 원인 해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정의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국가를 형성

네팔 제15차  
국가개발계획  
2019/20  
-  
2023/24

####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Prosperous Nepal, Happy Nepalese)

발 전 목 표	국가의 번영	국민의 행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대식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li> <li>2. 인적자원의 잠재력의 개발 및 활용</li> <li>3. 생산성 증가 및 유지</li> <li>4. 국가 소득 증가 및 형평성 증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웰빙 및 삶의 질 개선</li> <li>2.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li> <li>3. 건강하고 균형잡힌 환경</li> <li>4. 굿 거버넌스</li> <li>5. 종합적 민주주의</li> <li>6. 국가 안보</li> </ol>
국 가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구축</li> <li>- 양질의 의료시설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li> <li>- 생산력 강화</li> <li>- 사회 안보 및 안전 증진</li> <li>-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증진</li> <li>- 공공서비스 강화 및 지역별 균형 증진</li> </ul>	

#### 한국의 지원목표

- 기초보건 역량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기반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농업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 소득 증대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
- 수력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역량 지원을 통한 전력공급 안정성 개선

#### 중점분야별 지원방향

#####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 확충 및 기초보건 서비스 개선
- 의료보험 서비스 실현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 감염병 진단·대응 역량 강화

##### 교육 분야

- 청년층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사역량 강화 및 고등교육 역량 향상

##### 지역개발 분야

- 자조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농촌지역개발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따른 농업개발

##### 에너지 분야

- 수력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역량 확충을 통한 산업 기반시설 구축

- (지원 목표) 네팔 제 15차 국가개발계획('19/20~'23/24)에 부합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네팔 국민의 빈곤 수준 완화 및 네팔 정부의 '26년 최빈국졸업 계획 달성을 지원
  - 네팔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및 사회 경제 인프라 구축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한편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회복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전 사업에 전략적으로 포함하는 방향 고려
- (중점협력분야 및 선정사유) 네팔의 국가개발계획, 한국의 원조 역량 및 경험, 기회·장애요소, 예상 재원 규모, 타 공여국과의 공동협력, 분야 간 연계성을 고려, 중점협력 4개 분야 선정
  - ① (물관리 및 보건위생) 기초보건 역량 강화 및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 － 취약지역 보건의료 전달체계 강화 및 K-방역 모델 시사점 도출과 연계를 통한 네팔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② (교육)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기반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 네팔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분야 수요를 고려한 숙련인력 양성
  - ③ (지역개발) 농업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 소득 증대 및 국가 균형 발전 기여
    - － 해외이주노동 확대 및 농촌공동화 가속화 속에서 코로나19로 피해해진 농촌 취약계층 중심 지역개발 및 식량안보 강화
  - ④ (에너지) 수력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역량 지원을 통한 전력공급 안정성 개선
    - － 다자은행 및 민간기업 PPP 적극 활용으로 수자원 개발 및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1)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 개발수요

## ○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현황

- (보건의료 전달체계) '20년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0.9개로 세계평균 2.0개 대비 낮은 수준(네팔 보건부, '20)
- 특히 감염병 대응 격리병상과 집중치료병상의 비율이 낮아 COVID-19과 같은 감염병 재발시 대처 필요 시설이 부족
- (의료인력 부족) 네팔 보건의료 인력은 '18년 인구 1000명당 의사 1.9명으로(WHO) WHO 권고사항인 인구 1,000명 당 의료인 2.3명 수준(DoHS, '12)보다 낮은 것으로 관측
  - \* 산간지방 등 오지 지역 근무 기피현상으로 근무지 이탈 또는 결근문제로 지역별 의료인력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
- (정부 보건의료재정 취약) 네팔은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의 제한된 재원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
  - \* World Bank에 따르면 네팔의 개인 의료비 지출은 '17년도 기준 \$86.7로 저소득국 평균치 \$41.7보다 약 두 배 높으며 '06년도 이후 지속 상승세
- (불완전한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네팔 보건부에서 제출한 '18/'19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병원 29.6%, 공공병원 73.6% 만 지난해 12개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관측
- 네팔의 기대수명과 아동사망률은 개선중이나 타 서남아 국가의 수치와 비교시, 기대수명은 약 70.4세(8개국 중 5번째), 아동사망률은 1,000명당 32.2명(8개국 중 4번째)로 취약('19 World Bank 통계)



- 네팔 보건인구부 '18/'19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설사병, 백일해, 말라리아와 같은 위생 환경 악화가 유발하는 전염성 질병에 의한 사망건수가 많은 것으로 관측

#### ○ 정책적 수요

- 네팔 정부는 제15차 국가개발계획('19/20-'23/24)에서 건강하고, 생산성이 있으며, 책임 있고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보건 시스템을 강화 확대함으로써 모든 인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특히, 네팔 보건 분야 지원계획(NHSP-III, '15-'20)을 통해 동 분야 중에서도 모자 보건, 생식 보건, 전염성 질환 통제 및 보건 재정에 초점
- '20/21년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네팔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
- \* 구체적으로 보건분야에서 ▲보건 인프라, ▲의료인력 역량강화, ▲감염병 예방사업 확대, ▲감염병 전문 병원 설치, ▲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보건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표명

####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1970년대 초반 모자보건법 제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등 단시간 내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 경험 보유
- 한국은 지역 단위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업무체계화, 가족계획요원 및 보건진료원 등 단계별 보건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 의료재정 역량강화 등의 경험 보유
- 또한 네팔 내 취약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및 중앙 정부 보건 의료 제도 역량강화, 보편적 의료보장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 경험이 있으며, GIZ, UNDP 등과의 협력 경험 보유

## [2] 교육 분야

### □ 개발수요

#### ○ 교육분야 현황

- 네팔은 전체 인구의 44.2%가 18세 미만이며, 15-49세 노동 가능 인구 비율이 50.6%를 차지
  - 풍부한 젊은 노동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청년층의 기술 부족 원인으로서는 낙후된 인프라와 기자재, 교사들의 역량 부족, 산업 수요 및 실용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론 중심의 기술교육 커리큘럼 등이 있음
- 또한 교육생들을 위한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이 미미하고, 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연계 부족으로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 교육을 통한 기술 습득 기회 저조

#### ○ 정책적 수요

- 네팔 정부는 15차 국가개발계획('19/20-'23/24)에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인적 자원 부족, 자격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기술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포함한 교육분야 전략 수립
  - 특히 7대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로 '농업, 관광, 제조업, 수출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과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질적 향상'을 채택

- '30년까지 실업률을 현 27.8%에서 10%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또한 네팔 정부는 국내 산업 및 해외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숙련 기술인력 양성, 기술교사 역량강화를 비롯한 기술직업 교육훈련 과정 개선 및 취약집단의 교육접근성 향상 등을 추진 중
- 더불어 취약국인 네팔의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소를 실현하기 위한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이 가능토록 제도적 환경 구축이 절실
- 네팔 정부의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편성 비중은 약 10% 안팎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계획이 미흡한 상황

##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산업화·경제 성장 경험 보유
- 기술교육직업훈련 제도·과정 개발을 비롯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ICT) 등 공과별 교육과정, 풍부한 전문가 확보 등에서 강점 보유
- 기술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국제적인 비교우위도 높은 것으로 평가
- \* 국가경쟁력보고서 중 한국의 고등교육 및 훈련분야 순위(2019): 141개국 중 13위

### [3] 지역개발 분야

#### □ 개발수요

##### ○ 지역개발 분야 현황

- नेपाल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크며 농촌주민이 전체 빈곤인구의 95%를 차지
- 국민의 66%가 농업에 종사(GDP의 1/3을 담당)하나 농업 생산성이 낮음. 이는 생산 인프라 부족, 협소한 농지규모, 토지소유 불균형, 영농자재 투입부족, 영농인력 부족, 낮은 노동생산성 등에서 기인
- 대부분 산악지역인 नेपाल 농촌은 접근성이 취약하고 저장시설이 부족해 농산물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농가소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 예산 부족 및 민간투자 유인책 부재, 농업 분야 전문인력, 시설 장비·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 정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 정책적 수요

- नेपाल 정부는 '15년 수립한 20개년 농업발전전략(ADS,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15-'35) 및 최빈국 졸업계획에 따라 농촌 및 농업개발 전략안을 재설정
- 농업발전전략은 농업 부분 개발을 국가 발전의 선결 과제로 인지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 상업화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 등 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업 기반시설 및 생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목표를 수립
- नेपाल의 농촌·농업개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 지역 거버넌스 강화, 소규모 농업 인프라 등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 농업 생산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비농업 경제 활동 발굴
- 제15차 국가개발계획에서도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구축 및 영양개선, 농업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소득증대와 기업육성, 농업분야의 상업화 경쟁력 구축을 통한 농업무역 균형을 목표로 제시

##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정부의 농업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농업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다수 설립·운영한 경험 보유
  - 또한 시설현대화, 스마트농업 적용 및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농 지도자 육성으로 농촌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농촌지역 개발 및 도농간 균형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종자개량과 재배기술 개발, 투입재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농업 부가가치 증대, 첨단 농업 기술 개발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풍부한 인적 자원을 양성
- 우리의 농업분야 발전경험은 현재 네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정부 지역사회 개발자조 역량강화(Local Governance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이니셔티브와 유사성이 있어 농업 발전을 위한 접점 모색 가능

## [4] 에너지 분야

## □ 개발수요

- 에너지 분야 현황
  - 네팔의 수력발전 잠재력은 83,000MW로, 이 중 경제성이 있는 기술적 포장 수력은 약 43,000MW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약 2.7%만이 개발되어 총 수력발전 설비 용량은 1,182MW에 불과한 상황
  - 전체 인구 74%만이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하는 전력에 접근이 가능하며, 전기에는 400MW 가량의 전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에너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전력공급의 확대가 필요
  - 한편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의 탄소배출감소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

## ○ 정책적 수요

- नेपाल 정부는 제15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20~'23/24)을 통해 10.3% 경제성장과 5,000MW 전력생산을 주요 개발목표로 제시
- नेपाल 전력청은 향후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매년 97MW(현재 총 설비용량의 15.8%)씩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

##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약 80년간의 댐, 양수발전소를 포함한 40여 개의 수력발전소 건설 등 수력 발전의 역사를 보유
- 한국은 수력발전소 건설 관련 친환경적 접근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또한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한국의 경험·기술력을 바탕으로 नेपाल, 에티오피아, 페루 등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 중
- 한국은 우수한 송배전 기술로 세계 수준의 발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송배전 분야의 기술협력 등 비교우위를 보유

**(1)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 기본방향

-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 취약집단(여성 및 아동, 소수민족, 빈곤층, 불가촉천민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नेपाल의 모자 보건 역량 강화 지원
- 보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 서비스 확산을 위한 역량강화 기여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3.1) 산모사망률 감소
- (SDGs 3.2)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가능한 사망의 종식
- (SDGs 3.3) AIDS, 결핵, 소외열대질환 등의 질환과 전염병 퇴치
- (SDGs 3.7) 성·생식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생식 보건을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
- (SDGs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등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 (모자보건 역량강화)

- －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접근을 통한 1차보건 증진 기여
- －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강화
- － 모자보건 증진 등을 위한 UNICEF, WHO 등과의 협력과 연계 강화

- (지역보건체계 개선)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네팔의 보건 수요와 의료접근성 제고 위한 **보건 인프라 증축**(병원, 기자재 등) 및 **의료진 역량 강화**
  - 지역보건소 시설·기자재 지원을 통한 지역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현지 의료진 역량강화를 통한 **보편적의료보장** 달성에 기여
    - \* 누와콧(지진피해복구), 무구(의료 소외 해소), 티까풀 및 카트만두(의료체계강화) 등 네팔 내 각 지방 주요지역 및 전국(의료보험체계 구축) 대상 사업 추진 경험
    - \*\* 코로나19 이후 의료진 역량강화, 진료데이터 관리체계, 의료보험 가입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네팔 정부의 보편적의료보장(UHC) 실현 기여 기조 유지, 신규 사업을 기획 및 추진
- (감염병 진단·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관련 한국 방역물품 공급과 네팔 공공병원 중심의 진단체계 강화
  - 네팔 정부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산 진단키트, 검사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등 방역물품과 의료기자재 지원 등
  - 네팔 보건 정보체계와 연동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네팔 국립보건연구소과 연계한 감염병 대응·관리 매뉴얼 수립 지원

## (2) 교육 분야

### □ 기본방향

- 청년층 기술역량 향상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사 역량 강화**
- 기술 인력이 국내외 취업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네팔 내 **산학 연계 및 취창업 지원 강화**
-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 강화**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4.3) 모든 여성과 남성대상 양질의 제공 가능한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 접근성 제고
- (SDGs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직업기술 보유인력 증대
- (SDGs 8.6) 청년 실업률 경감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사역량 강화)** 네팔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분야 수요를 고려하여, 청년층 기술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기술훈련원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 견인
  - － 타 원조기관(ADB, SDC, 핀란드 등)과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 강화
  - － 직훈련 양적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 시 매년 1건 이상 직훈련 사업 발굴 검토
  - － 네팔 연방정부 최초 모델 폴리텍 설립 사업 내 직훈련 교사 대상 이러닝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기존 지원한 기술교사연수원 IT 강의동을 폴리텍의 온라인 교육 허브로 운영하는 등 기존 직업훈련 사업과의 연계 모색
  - － 기존 단일 직훈련원에서 각 네팔 각 지방의 모델 폴리텍으로 수혜 범위 확대
  - － 국가직업자격제도, 직훈련 교사 커리큘럼 개발, 직훈련 교사 자격증 제도 지원 등 제도적 차원의 지원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업훈련 분야 질 제고
- **(취창업 지원강화)** 사업 수원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사업 관련 기술 인력이 국내외 취업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네팔 내 산학 연계 및 현지 기업체와의 연계강화

- 시장중심, 현장중심의 기술 교육 훈련을 위한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OJT, 인턴십)
- 교육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상담, 취업설명회 등 취업 관련 서비스패키지 개발 운영
- 귀환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추가 기술교육 프로그램, 재정교육, 창업교육 지원 One-stop 서비스 센터 운영
- 기후변화 대응 관련 नेपाल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재난 경감 관리 및 환경개선 관리 분야에서의 Green job 창출 지원
- (고등교육 역량 강화) नेपाल 내 대학 연구개발 역량 지원, 지도자 양성과정 등 고등교육기관 인력 대상 역량 강화
  - 온라인 원격강의 플랫폼 구축, 대학 연구기관 내 연구개발 및 기술분석체계 강화 지원
  - 대학교 및 연구기관 내 학생/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공동체의 개발수요 연계 및 대학-지역 통합적 개발 지원
- (COVID-19 대응) 코로나19 취약 계층(여성, 귀환노동자 등) 대상 직업훈련 기회 우선 확대, 안정적인 재정착 및 자립기반 강화 기여
  - 코로나19 여파로 강제 긴급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고용증진, 창/취업 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 확대
  - 코로나19 제약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수요 증대를 반영한 기술교사 이러닝 역량강화 사업 추진

### [3] 지역개발 분야

#### □ 기본방향

- 농업 및 농업 外 경제활동 기회 창출, 농업개발, 사회서비스 균형 지원 등을 포괄한 포괄적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 지원
- 농업 기반시설 및 생산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소득 증대 기여
-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생계와 식량 안보 개선

####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2.3) 소농 농업생산성 및 소득증대
- (SDGs 2.4)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 보장 및 복원력 있는 농업활동이행
- (SDGs 2.a)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및 농업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등 투자 확대

####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포괄적인 농촌지역개발) 농업 및 농업 外 경제활동 기회 창출을 통한 농촌소득 증대, 개인/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개발, 교육보건 등 사회서비스의 균형지원을 통한 상호 견인작용 창출 및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 지원
  - － 협동조합, 여성조합 등 커뮤니티 기반 조직 역량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성장 발판 마련
  - － 이를 위해 조합 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금융서비스 제공, 농업 인프라 및 기자재 확충, 지역 특산물 활용 커뮤니티 영농기업 설립 등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농촌개발 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및 생계활동 지원) 생물다양성, 환경, 지역 문화 등을 고려한 과학에 기반을 둔 농업 시스템 등 농업기술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농촌 소득 증대 지원

- 생산성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농업 인프라(농기계, 냉장보관시설, 집하장) 개선, 영농기술 지원, 유통/마케팅 지원, 협동조합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상업적 영농기반 확보
  -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농업방식 개선, 재난관리 측면 고려 사업 발굴 및 추진
-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및 식량안보 개선
-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여성, 청년, 귀환 노동자)의 피해가 심각한바, 취약계층의 생계와 식량안보를 포괄할 수 있는 ‘학교, 지역사회 보건소’ 등과 연계한 통합적 지원 필요
  - 상업화 기반 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농업 비즈니스 활성화 및 농촌 금융 접근성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증대, 식량 다양화 및 식품 가공을 통한 영양 환경 개선 실현

## [4] 에너지 분야

### □ 한국의 지원 기본방향

- 에너지 공급 전반적인 확대를 위한 수력발전·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
  - 정책 및 전략 컨설팅, 발전설비 지원 통한 에너지 접근성 확대 지원
- 에너지 개발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잠재력 발굴 도모
  - 다자은행 및 민간 부문 협력, 유무상 연계 등 자원 종합적 고려

####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7.1)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SDGs 7.2)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SDGs 7.3) 에너지 효율 개선율 증대

###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수력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분야 다년간의 경험 및 기술력 활용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용자, 민간재원 활용 등 지원방식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은 '19년 5천만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EDPF)'을 활용하여 네팔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지원\*
- 우리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도 진행 중으로, 향후 수력발전 및 수자원 관리 분야 국내 기업의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유무상원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함

※ ▲Upper Trishuli-1(어퍼트리술리 원, 216MW)\*, ▲Chameliya(차멜리야, 30MW)\*\* 수력발전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진출

\* Upper Trishuli-1 사업은 한국기업(남동발전)의 네팔 내 최초 민자발전 수주

\*\* Chameliya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으로 '19년 사업 종료

#### 네팔 개발목표(네팔 2026 최빈국졸업 유예예정)

: 경제적 빈곤의 원인을 해소하여 네팔 국민의 긍정적인 삶의 질 변화를 통한 정의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국가를 형성하여 2026년까지 최빈국 졸업 달성, 2030년 중소득 국가 도약 및 유엔 SDGs 달성 필요

#### CPS 목표 : 분야별 목표 포괄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성과 지표
물관리 및 보건위생	<p>기초보건 역량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li> <li>- (SDG 3.1.2) 전문인력에 의해 분만한 임산부 수(명)/비율</li> <li>- (WHO) 4회 또는 8회 이상 산전관리를 받은 임산부 수(명)</li> <li>- (WHO) 출산 후 48시간 이내 산후관리를 받은 임산부 수(명)</li> <li>- (SDG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이용 인구수(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팔정부의 보건정책 일관성, 추진의지 및 역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성사망율 감소 기여</li> <li>-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감소 기여</li> <li>- 소외지역 모자보건 수준 향상</li> <li>- 지역보건 역량강화</li> <li>-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역량 향상</li> <li>- 보건서비스의 물리적, 재정적 접근성 향상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에 의해 분만한 임산부 수(비율)</li> <li>- 4회/8회 이상 산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임산부 수(비율)</li> <li>- 출산 48시간 이내 산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임산부 수(비율)</li> </ul>
교육	<p>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기반 및 국가 경쟁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4.3) 여성/남성의 양질의 교육 접근성 확대율</li> <li>- (SDG 4.4) 전문기술 보유인력 증가율</li> <li>- (SDG 8.6) 청년 실업률 경감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인력을 흡수할 내수 산업 부족</li> <li>- 정부 재정 및 관리역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교사 역량강화 (교사 및 학생 자격증 취득율 향상, 교육과정 개선 등)</li> <li>- 고급연구인력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2개월 내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성인 비율</li> <li>- 학습자 자격 취득률</li> <li>- 졸업생 취업률</li> </ul>

지역개발	<p>농업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 소득 증대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 2.4) 농가소득 변화율</li> <li>- (SDG 2.3)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율</li> <li>- (SDG 9) 가구당 식량보급 개선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및 농업 인프라 취약</li> <li>- 농업기반의 소득향상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원 대상지역 농민소득 향상</li> <li>- 농업 생산성 향상</li> <li>- 공동체 자조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단위당 생산규모</li> <li>- 소규모 농업인(소농) 평균소득</li> </ul>
에너지	<p>수력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역량 지원을 통한 전력 공급 안정성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s 7.1)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li> <li>- (SDGs 7.2)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li> <li>- (SDGs 7.3) 에너지 효율 개선율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건설 및 관리역량</li> <li>- 정치외교적 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नेपाल 수력발전 생산량 증대 및 전력 보급률 향상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 내 수력에너지 발전용량</li> <li>- 대상지역 내 전기사용 수혜자수</li> </ul>
주요 가정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류 이동 및 자재수급이 어려운 내륙국 특성 극복</li> <li>2. 개정헌법 이행 추진</li> <li>3. 재해에 대한 국가 또는 사업 취약성 감축 및 적응력 개선</li> <li>4. 기후변화에 따른 원조 사업 환경변화 예측 및 대비</li> </ol>		

## IV. 이행전략

### □ 타 공여기관과의 원조조화

- (보건) 네팔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보건의료체계 전반 역량 강화를 위해 타 공여기관(UNICEF, WHO 등 현지 보건공여그룹 EDP)과의 협력강화
  - 특히,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강화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활용, 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한 효과성 제고 및 네팔 정부의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
  - 코로나19 상황 속 공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백신조달, 의료기자재(PCR진단키트, 산소발생기, 산소호흡기 등) 및 방역물품(방호복, 마스크 등) 인도적 지원
- (교육) 네팔 기술교육직업훈련(TVET) 정책 및 이행계획에 부합한 효과적인 활동 이행을 위하여 ADB, SDC 등 타 공여기관과 활동 조율 및 협력 강화
- (농업) 네팔 농업기술 역량 강화에 공동이해를 가진 타 원조기관과 협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계적 사업 형성
- (기후환경) 네팔이 '환경친화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재건(Green Recovery and Sustainability)'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 파트너그룹(IDPG)과 네팔정부의 구제, 재건, 회복력제고 위한 공동의 노력 추진

### □ 정책부합성 제고

- (그린뉴딜)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따라 네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ODA 확대
  - ▲ 온실가스 저감, ▲ 기후적응력 향상, ▲ 교차(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



- (디지털뉴딜) 우리 정부의 디지털 ODA 사업 추진전략을 네팔 현지 실정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 **네팔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
  - ▲디지털 공공서비스 강화, ▲주요 분야에 ICT 융합 확대, ▲에너지 인프라의 디지털화 지원,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지원 등을 통해 네팔의 지속가능발전(SDGs)에 기여

## □ 민관협력 활성화

- 사업형성 시 **현장 주도**의 수요조사 이행 및 네팔 연구기관·대학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네팔 내 수요맞춤형 사업 발굴
- 현지에서 풍성한 사업수행경험을 갖춘 **국내 및 현지 민간기업** 및 CSO와의 사업유형별 사전/사후 협력 강화로 현지 맥락에 맞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 □ 유·무상 간 연계 강화

- 미개발 수자원과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기술협력 등 **유·무상 협력** 모색을 통한 비용효과성 및 개발효과 창출 극대화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

- '15년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원조정책 또한 네팔의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필요성 확대
- 기존 추진 중인 사업 분야·방식·체계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정부의 개발협력구상 및 신사업 발굴시 네팔의 SDGs 달성 기여를 위한 전략적 성과목표 및 모니터링 방안 수립
- “Leave No One Behind” 2030 개발의제의 주요 원칙에 따라, ODA사업 전반에 걸쳐 장애·인종·성별 등에 따라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증진

## V.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 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고 ODA 사업 발굴단계 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이 회의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

#### <리스크 매트릭스>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정치적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li> <li>○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li> </ul>	분기별
2. 테러로 인한 자산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규모 및 안전상황 점검</li> <li>○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li> <li>○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li> </ul>	분기별
3. 거시경제적 불안상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환경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 투입</li> <li>○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li> <li>○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li> </ul>	분기별

4. 자연재해 및 전염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 검토</li> <li>○ 전염병 발생 시 사업 일정 및 환경 점검</li> <li>○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li> </ul>	상 시
5. 법적·제도적 장애물 또는 변경사항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제도적 장애요인·변경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li> <li>○ 사업진행 계획 변경 필요 검토</li> </ul>	연 1회
6.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과의 대화채널 점검 및 재설정</li> <li>○ 변경된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브리핑 조속히 실시</li> </ul>	상 시
7. 공여국간 협력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여국 대화채널 확대 모색</li> </ul>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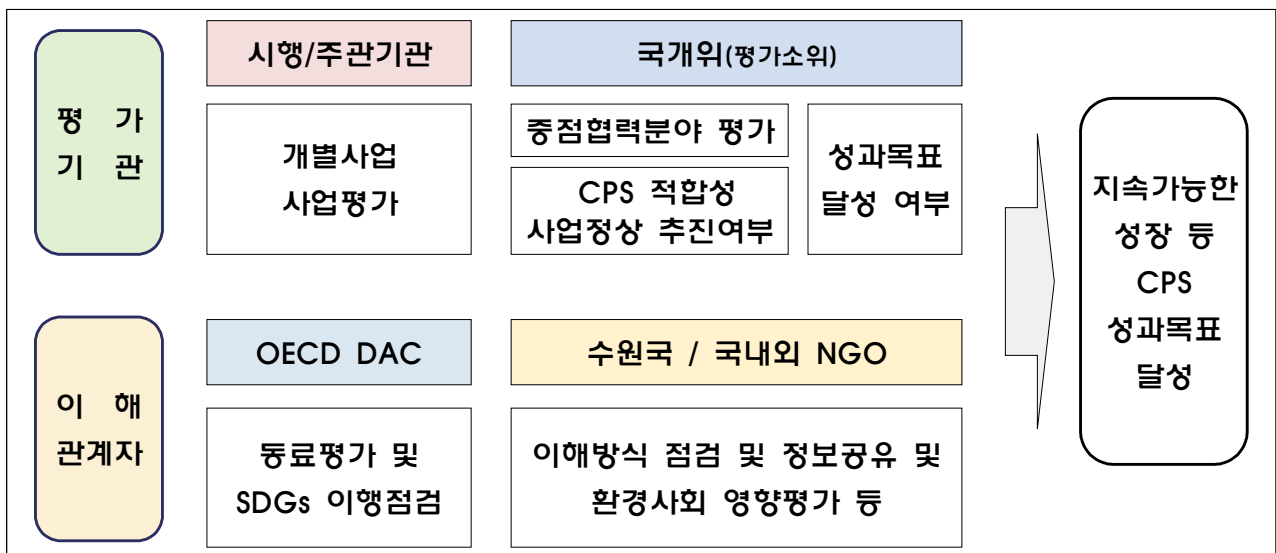
## 2 평가 계획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 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CPS 적용 2-3년 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CPS 종료 1년 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CPS 수정 및 재수립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성과점검방안 가이드라인의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 (중점협력분야) 이행점검상 성과지표를 활용한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포함, CPS에 따른 사업발굴 및 이행결과를 점검

<평가 절차 도식도>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 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 1 지원 현황

### □ 네 팔 제2차 국가협력전략(2016-2020) 개요

- 우리나라의 對네팔 2차 국가협력전략(이하 CPS)은 네팔의 장기적 국가 비전 및 제14차 국가개발계획('16/17~'18/19)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이에 부합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 네팔 국민의 빈곤 수준 완화 및 네팔 정부의 최빈국졸업 계획 달성과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및 사회 경제 인프라 구축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점협력분야로써 ①물관리 및 보건위생 ②교육 ③지역개발 ④전력공급 안정성 개선에 전체 재원의 70%를 집중하며, 범분야로 양성평등과 환경에 대해 통합적인 지원 추진을 계획

### □ (총괄) 지난 5년('16-'20)간 약 22개 부처·기관\* 에서 약 8,170만 달러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함(집행액 기준).

\* (참여부처·기관) 교육부, 과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기상청, 관세청, 한국 국제협력단(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EDCF) 등

#### <한국의 對네팔 지원 추이('16-'20)>

(백만 달러, 총지출, 명목가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무상	약정	24.85	11.32	11.91	8.89	12.14	69.11
	집행	16.18	17.12	12.60	16.29	14.23	76.42
유상	약정	-	-	-	50	-	50
	집행	-	-	-	5.28	-	5.28
계(집행)		16.18	17.12	12.60	21.57	14.23	81.7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OECD Statistics.

- 무상원조사업으로 '16-'20년간 총 7,642만 달러 지원
  - 유상원조사업의 경우, 2016-2020년간 총 528만 달러 지원
- (분야) '16-'20년간 우리나라의 對네팔 ODA 지원은 교육(23.6%), 보건(22.6%), 농업(16.6%),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7.9%) 순

<한국의 對네팔 분야별 지원 현황(2016-20)>

(백만 달러, 총지출, 집행액, 명목가격)

구분	교육	보건	농업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에너지	다부문 (환경, 과학기술)	공업	통신
금액	19.24	18.45	13.54	6.45	5.94	5.72	3.63	2.8
%	23.6	22.6	16.6	7.9	7.3	7.0	4.4	3.4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 (개황) 인도 북부 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국가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수력자원이 풍부하며 2,860만 명('19년)의 인구 보유
- (정치) 10년 간 이어졌던 내전이 '06년에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이어 '08년에 왕정이 종식된 후 정치적 불안과 공백이 있었으나, '15년 9월 신헌법 공포에 따른 선거 실시 및 공산당 정부 출범함.
  - '15년 9월 신헌법 제정, 같은 해 10월 Bidya Devi Bhandari 대통령과 Khadga Prasad Sharma Oli 부통령 선출
  - '20년 12월, 올리총리가 하원의회 해산을 건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21년 1~2월 시위가 확산되었으나 2월, 대법원의 의회해산 위헌결정에 따라 하원의회가 복구
  - 하지만 이후 '21년 3월 중순, 네팔의회당(NC), 네팔공산당-마오이스트(MC), Janata Samajbadi 당이 3자연합을 통해 올리 총리 불신임운동 촉발
  - '21년 5월 10일, 올리총리 신임투표 결과 '불신임'이 결정된 후 반다리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정부 구성을 5월 13일까지 요청하였으나 야당은 정부 구성에 실패하여 5월 14일 올리총리 재임명, 5월 22일 하원의회 재해산
  - '21년 7월 대법원결정으로 올리총리 하야, 데우바 총리 임명
- (빈곤감소) 네팔의 빈곤선 이하 비율은 '16년 기준 21.6%이며 '17/'18년 기준 18.7%, '19/'20년 16.7%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빈곤 상황 악화 예상

- (SDG 달성) 네팔 정부는 '30년 SDGs 달성을 목표로 “No one behind”라는 원칙下 ‘취약한 인간개발 조건, 제한된 인프라, 내륙 산악지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중
  - 특히 15차 국가개발계획('19/'20-'23/'24)상 SDGs에 부합하도록 “네팔의 번영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0대 달성목표를 수립
  - 다만, 코로나19는 SDGs를 위한 파트너십과 자원조달, 전지구적 협력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 □ 경 제

<네팔 주요 경제 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sup>e</sup>	2021 <sup>f</sup>
국내경제	GDP	억 달러	212	252	290	307	322	340
	1인당 GDP	달러	777	911	1,034	1,079	1,116	1,166
	경제성장률	%	0.6	8.2	6.7	7.1	0.0	2.5
대외거래	경상수지	백만 달러	-168	-1,033	-2,775	-1,714	-2,568	-1,847
	외환보유액	〃	8,476	9,138	8,045	8,374	8,236	8,37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2021 세계국가편람)

주: e=estimate, f=forecast

- (거시경제) '15년 대지진 이후 '16-'20년 평균 약 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성장을 및 1인당 GDP 모두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 농업 및 서비스업 등 주요 경제부문이 외부 요인(기후변화, 강우량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미비한 제조업 기반시설 및 인프라 등이 네팔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인지
- (대외거래) 관광 수입 및 해외 근로자의 송금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나, 인도/중국에 대한 농산물 및 제조업 품목 수입의존도가 높아 적자폭이 증가 추세



- 내륙국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 \* 주요수출품('19/'20) : 팜오일, 원사(폴리에스터, 면류), 모직카펫, 공기름류, 기성복, 향마제품, 카다몬, 주스, 차(Tea), 식물류
  - \* 주요수입품('19/'20) : 석유류, 철강류, 기계부품류, 차량류(교통관련), 전자품목, 곡류, 옷감류, 통신품목 등 부품류
- (산업구조)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 대부분이 설탕, 맥주, 의류 등 **소비재 산업 중심**
  - \* 산업구조('19/'20) : 1차 산업(27.5%), 2차 산업(14.27%), 3차 산업(58.0%)
- 열악한 인프라, 잦은 파업과 노동분쟁,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 및 협소한 내수시장 등이 제조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19/'20년 회계연도 기준 코로나19 여파로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은 각 2.59%, 3.23%, 1.9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GDP 기준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은 각각 27.5%, 14.27%, 58.0% 차지
- '20년 기준 OECD 국가위험도는 6등급, 글로벌경쟁력지수는 141개국 중 108위,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124위로 최저그룹 상회
- (코로나19 경제영향) 세계은행은 네팔이 '21/'22년 회계연도 기준 2.5%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백신개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21년에도 **세계 관광산업에 침체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0월부터 관광객 입국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호텔 등 관광업계의 타격이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회복은 '24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나, 정부가 시행중인 민간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정당들의 기부 압박은 민간기업에 부담으로 작용중

## □ 사 회

### <네팔 주요 사회 지표>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간개발지수*	0.572	0.574	0.579	0.602	-
1인당 GNI (Atlas, 달러)	770.0	860.0	970.0	1,090	-
초등학교 순등록률 (% net)	98.3	96.5	-	96.3	-
초등학교 수료율	116.8	121.7		120.4	
중학교 순등록률 (% net)	92.5	94.7	-	97.4	
중학교 수료율(lower secondary)	89.6	94.6	-	99.5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national estimate)	-	250.0	-	-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34.6	33.2	31.9	30.8	-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27.1	27.2	-	-	-
기본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88.3	88.8	-	-	-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	-	-	-	-
기본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58.9	62.1	-	-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uman Development Index

- (인간개발) 네팔의 인간개발지수는 '19년 기준 0.602로 189개국 중 42위를 차지하여, 과거 기록 대비 지수 및 순위는 소폭 향상

\* 서남아시아 평균 HDI('19년) 0.641, 네팔은 '19년 189개국 중 142위(0.602)

- (균형성장) 경제성장 및 절대빈곤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종 및 카스트, 성별 간 불균형이 잔존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만연
  - 농촌의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지표가 꾸준히 향상되어 도시와 차이가 미미하나, 가옥 부지 내 식수시설 지표는 도·농간 큰 차이 有

### <네팔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

지표	2011	2017
농촌 식수 접근성	85.0%	88.7%
도시 식수 접근성	90.5%	89.1%
농촌 위생시설 접근성	41.6%	60.8%
도시 위생시설 접근성	53.9%	67.3%
지표	2011	
농촌 가옥 부지 내 식수시설	19%	
도시 가옥 부지 내 식수시설	42.6%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교육) 초·중등교육 등록률 및 수료율 모두 개선되었으며, 기초교육(1-8학년) 이후 중등교육으로의 진학을 및 기술교육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중

- \* 초등학교 순등록률 : 98.3('16) → 96.3('19)
- \* 초등학교 수료율 : 116.8('16) → 120.4('19)
- \* 중등학교 순등록률: 92.5('16) → 97.4('19)
- \* 중등학교 수료율 : 89.6('16) → 99.5('19)

- (보건) 모성 사망비, 영아사망률(5세 이하),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나, SDG 3.8 보편적 의료보장(UHC) 관련 지표 개선 필요

- \* 5세 이하 영아사망률(1,000명 당) : 34.6('16) → 30.8('19)
- \* 모성 사망비(10만명 당) : 258('15) → 250 ('17)
- \* 신생아 사망률(1,000명 당) : 98.3('16) → 96.3('19)

#### <SDG 3.8>

- \* 30분 내 의료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 61.8('15) → 49.3('19)
- \* 출산 전 건강관리(4회 기준)를 받는 여성의 비율 : 60('15) → 56.2('19)
- \* 출산 후 건강관리(3회 기준)를 받는 여성의 비율 : 20('15) → 16.4('19)
- \* B형간염 백신을 접종(3회 기준)받는 영아의 비율 : 88('15) → 86.4('19)

## □ 인프라

- (전체) 네팔의 전반적 인프라 수준은 열악,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19 글로벌경쟁력지수의 인프라 경쟁력 부문에서 51.8/100점 및 112위(총 141개국) 차지
- (에너지) 43,000MW에 달하는 높은 수자원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송전 시설 부족 및 전력 손실이 전력 부문의 문제로 지적
- (교통) 내륙국 특성상 여객과 화물 운송에 대한 도로 의존도가 높으며, 현재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인도의 콜카타 항만을 통해서 제3국 수출이 가능하여 수입 및 수출 비용 高

- '16년 3월 중국 내 항만 접근권이 포함된 MOU를 중국정부와 체결하였으며, 향후 지역 내 철도 건설 방안을 논의하여 नेपाल의 수출입 통로 다원화 모색중
- (도로) 전략도로와 지방도로를 포함한 전국 도로망 밀도는 100km<sup>2</sup> 당 50km를 차지하고, 전국도로망 중 '13년 기준 약 11%에서 '19년 약53%로 4배 이상 포장도로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낮은 도로 품질로 높은 운송 비용 초래
  - \* 전략도로는 약 13,060km이며 이 중 국도가 5,300km로 40%를 차지
  - \* 전국도로망 중 약 53% 정도가 포장도로이며, 국도의 약 60%를 포함('19)
- (항공) 관광업 비중이 높은 नेपाल은 카트만두의 Tribhuvan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총 54개의 공항(국제 공항 1개, 국내 공항 53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4개의 공항(국제 공항 3개, 국내 공항 1개)이 건설 중에 있으나 19개의 공항이 미운영 상태

## □ 범분야

- (환경) नेपाल은 세계에서 25번째로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하고 있는 자원 강국, 다만 대표적인 기후변화 취약국으로 고온현상과 강수량 저하로 인한 수자원 고갈, 가뭄, 산불 등 재난의 위험 보유
  - 약 48,000km<sup>2</sup>에 이르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댐감 및 주거지 마련 또는 불법 벌목 등의 이유로 산림 면적이 약 36,000km<sup>2</sup> 까지 감소
  - 도시 가구의 40.1%와 농촌 가구의 92.3%가 난방과 식사준비를 위해 댐감을 사용하며, 자동차 및 벽돌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 \*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적절한 정책, 감시, 행정 능력 등의 부족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 (양성평등)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등록률과 수료율에서 남녀 간 격차가 낮으나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며, 사회계층간 또는 지역 간 성불평등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
  - \* नेपाल의 성불평등 지수는 0.452로 189개 국가 중 110위('19)
  - \* 양성평등지수(GPI) : (초등교육) 1.1('15)→ 0.9('19) / (중등교육) 1.1('15)→ 1.02('19) / (고등교육) 0.8('13)→ 1.07('19)

-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가 여성의 권익옹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폭력과 조혼 등 병폐들이 남아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이 문맹일 경우에 더 심한 것으로 관측

\* '05-'19 조혼 비율 : 40%(만 20세~24세 여성 중 18세 이전에 결혼한 비율)

- 농촌에 사는 여성들이 성차별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법으로 금지된 낮은 카스트에 대한 차별 잔존

## 3

## 수원국 내 공여 활동

## □ 수원 현황

- '16~'20년간 對네팔 총 해외원조액은 76억 7천1백만 달러(총 지출 기준)로 무상 24억 8천3백만 달러(33%), 유상 40억 8천6백만 달러(53%), 기술협력 11억 달러(14%)
- 무상원조 규모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유상원조 규모가 '19/'20년도 크게 증가

회계연도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계
무상	533.19	582	570	424	374	2,483.19
유상	374.75	549	819	944	1,400	4,086.75
TA (기술협력)	166.11	263.36	233.3	211	226.6	1,100.41
계	1,074.05	1,394.36	1,622.3	1,579	2,001.35	7,671.06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네팔 재무부(2016),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15/'16

네팔 재무부(2017),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16/'17

네팔 재무부(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17/'18

네팔 재무부(2019),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18/'19

네팔 재무부(2020),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19/'20

- '19/'20 회계연도('19.7~'20.7)기준, 네팔 ODA는 총 20억불로(국가 전체 예산의 23.3%), 차관이 69.9%, 무상원조가 18.7%, 기술지원이 11.3%
  - － 네팔에 제공되는 ODA 중 차관의 비중은 지속 상승중('18/'19 회계연도 대비 10.1% 상승)
  - － 전체 ODA 규모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전체 ODA 중 25.6% 차지)으로 인해 '18/'19 회계연도 대비 21.5% 증가함.
- ODA 사업이 작은 규모의 사업들로 나누어져 있고, 공무원들은 많은 사업의 수행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중복되는 소규모 사업들 축소를 공여국·공여기관에 지속 요청중인바, 관련 원조조화/일치가 필요

## □ 주요 공여기관 활동

- '16-'20년간, 상위 공여국 기관은 **세계은행**(21억12백만달러, 27%), **아시아개발은행**(16억67백만달러, 21%), **미국**(5억73백만달러, 7%), **영국**(5억54백만달러, 7%), **일본**(4억12백만달러, 5.3%), **UN**(4억8백만달러, 5.2%), **중국**(3억79백만달러, 4.9%), **EU**(3억5백만달러, 4%) 등
-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약 81백만달러(1.07 %) 지원(총지출 기준)

회계연도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순위	공여국 /기관	비율	공여국 /기관	비율	공여국 /기관	비율	공여국 /기관	비율	공여국 /기관	비율
1	세계은행	22.69%	세계은행	24.81%	세계은행	32.9%	세계은행	33%	아시아 개발은행	30.5%
2	아시아 개발은행	20.27%	아시아 개발은행	18.21%	아시아 개발은행	18.0%	아시아 개발은행	19%	세계은행	23%
3	USAID	11.07%	USAID	9.61%	영국	7.6%	중국	10%	IMF	11%
4	UN	10.57%	영국	9.20%	USAID	7.3%	영국	7%	USAID	4.8%
5	영국	8.33%	UN	8.66%	EU	7.2%	일본	7%	영국	4.8%

자료: 네팔 재무부('16-'20),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15/'16, '16/'17, '17/'18, '18/'19, 19/'20

- 한편, 네팔에 제공된 '19/'20 회계연도 ODA 중 71%가 ADB, 세계은행, IMF, EU, UN 등 **다자기구에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29%는 **양자간** 지원으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순임.
- 주요 공여기관 별 중점 지원전략 및 분야는 아래와 같음.
  - (WB) 빈곤감소, 포용적 개발 및 공동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네팔의 새로운 연방 시스템을 지원
    - \* 주요 지원 분야: 에너지, 지역개발, 교육, 경제개혁, 금융개혁, 주택, 농업, 도로, 운송, 관개, 상업, 대체 에너지, 도시개발, 산림, 건강, 정책 및 전략, 여성-아동 및 사회복지, 행정, 환경-과학 및 기술 평화 및 재건
  - (ADB)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선, 서비스 접근성 개선, 환경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의 세 가지 목표 추구
    - \* 주요 지원 분야: 에너지, 도시개발, 식수, 교육, 금융개혁, 경제개혁, 지역개발, 도로운송, 농업, 항공 운송, 관개, 관광, 환경 과학 및 기술, 상업, 통신, 기타 사회 및 지진 재건

- (EU) 더 번영하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국가로서 नेपाल 노력을 지원
  - \* 주요 지원 분야: 농업, 통신, 헌법 기관, 경제개혁, 교육, 에너지, 환경 과학 및 기술, 건강, 노동, 지역개발, 평화 및 재건, 계획 및 통계, 정책 및 전략, 여성-아동 및 사회복지, 청소년 스포츠 및 문화
- (USAID) 개선된 민주적 거버넌스와 보건 및 교육 성과를 제공하는 자립적이고 번영하며 포용적인 नेपाल
  - \* 주요 지원 분야: 보건, 농업, 지역개발, WNOR, 산림, 생계, 환경 과학 및 기술, 교육, 금융개혁, 에너지, 식수, 여성-아동 및 사회복지, 평화 및 재건, 계획 및 통계, 지진 재건, 행정, 인구, 도로 운송
- (영국) 빈곤퇴치, 불안정성 해소, 개발도상국의 번영 창출을 위한 노력
  - \* 주요 지원 분야: 환경 과학 및 기술, 경제개혁, 보건, 금융개혁, 금융서비스, 교육, 가정문제, 지역개발, 식수, 산림, 여성-아동 및 사회복지, 생계, 노동, 농업, 청소년, 스포츠 및 문화, 평화 및 재건, 계획 및 통계, 대체 에너지, 지진 재건, 노동, 기타 사회 정책 및 전략, 재생 가능 에너지
- (일본(JICA)) 인간 안보와 질적 성장 추구
  - \* 주요 지원 분야: 산림, 주택, 지역개발, 기타 사회 평화적 재건, 계획 및 통계, 도로 교통, 도시개발, 농업, 항공 운송, 헌법 기관, 식수, 지진 재건, 교육, 에너지, 건강, 관개, 생계
- 공여국 및 외교기관 협의체(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 Group)를 구성하여 정례회의로 원조조화를 추구하며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 중